

■ 사진으로 보는 동네 소식



대연1동 자원봉사캠프는 지난 6일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김치, 라면, 백설기, 수세미, 생필품 세트 등을 취약계층 10세대에 전달했다.



대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평화공원 일원에서 홀로어르신 20명의 정서적 고통감 해소를 위한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대연4동 새마을문고회는 지난 6일 대한사회복지회 사랑샘에 애착인형과 베이비 바운서 등 미혼모와 신생아를 위한 물품을 후원했다.



대연5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저소득층 어르신 100여명을 초대해 점심식사로 소고기 전골을 대접했다.



대연6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지난 17일 관내 주택가 등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용호1동 다들들봉사단은 지난 4일, 11월에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홀로어르신 5세대를 방문해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안부를 살폈다.



용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월 31일 홀로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경로전차를 개최해 공원을 열고 식사를 대접했다.



용호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3일 폐가 부지를 활용한 텃밭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저소득층 60가구에 전달했다.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이웃과 나눕니다

남구 새마을부녀회 주관 '2019 사랑의 김장 나누기'

“배춧잎 안쪽까지 꼼꼼하게 치대야 양념이 잘 배어들지. 여기 쪼매만 더 버무려 보소!”

갑작스레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 21일, 남구청 1층 부산은행 입구 광장 앞에 한바탕 진풍경이 펼쳐졌다. 수북이 쌓여있는 하얀 배추들과 침샘을 자극하는 빨간 양념들이 초록색 조끼를 입고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어머니들의 손에 맛있게 버무리지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색색깔의 퍼포먼스(?)는 바로 남구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는 ‘2019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였다.

김장 나눔은 부녀회가 매년 주관하는 행사로 부녀회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료준비부터 포장 및 나눔까지 모든 과정에 부녀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한 두포기도 아닌 1,000여포기나 되는 배추에 양념은

대중 사서 치밀 법도 한데 모든 재료를 시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맛도 보고 나서야 구입을 한다. 전남 해남에서 온 배추와 경북 영주에서 공수한 고춧가루를 제외하고는 마늘, 젓갈 등 모두가 부녀회 임원진들이 발품을 팔아 얻은 재료들이다. 뿐만 아니다. 회원들은 해도 미처 다 뜨기 전 새벽부터 재료를 다듬고 끓인 육수로 양념을 만들어 배추 치밀 준비를 했다.

그리고 대망의 치대기 작업날, 회원들은 1,000여포기의 배추를 상대면서도 특유의 밝고 호탕한 기운을 잃지 않았다. 우리동네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김치이기에 더욱 마음을 썼기 때문일 것이다. 작은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 이유도 바로 우리동네 이웃들이 먹을 김치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장에는 새마을운동남구지회 산하 새마을지도자남구협의회와 새마을문고



남구지부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이웃사랑을 위한 활동에 기여이 동참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가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과 김태유 새마을운동남구지회장의 후원으로 더욱 많은 이웃들에게 넉넉히 나눌 수 있도록 360여상자의 김장김치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완성된 김치는 남구 17개동 255세대를 비롯해 새마을부녀회 결연가족들, 지역아동센터 예뻐하

및 남구장애인복지관 등에 전달됐다.

한편, 관내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이날 행사와는 별개로 김장 행사를 각각 진행해 동 가까이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김치를 나눠줄 예정이다. 부녀회의 사랑 가득 김장김치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삼장학회 첫 장학금 수여식



사단법인 대삼장학회(이사장 배도성)는 지난 10월 31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학생 5명과 고등학생 8명에게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2018년 7월 법인 설립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장학회는 앞으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회 후원 문의 ☎607-6643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교통안전용품 단디바 기탁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지역본부장 문용호)는 지난 12일 남구에 220만원 상당의 교통안전용품 단디바 100개를 기탁했다.

‘단디바’(단단하)의 경상도 방언)는 폐지 또는 폐자원을 수집하는 손수레의 짐을 고정하는 야광 바줄이다. 고탄력 밴드로 제작되어 폐지를 손수레에 간단하고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으며, 야간에 운전자들의 눈에 잘 식별되도록 고휘도 야광 반사천을 부착하여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디바는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1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용호 지역본부장은 “새벽과 야간에도 폐지수집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단디바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털실로 전하는 포근한 이웃사랑

감만1동 손뜨개 목도리 전달식

지난 9월, 감만1동에서 ‘사랑 나눔 따뜻한 손뜨개 교실’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재작년에 봉사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고 양지골북합센터에서 진행되는 뜨개질 수업도 꾸준히 들어왔기에 이번에도 봉사자로 나서기로 했다.

감만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손뜨개 교실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양지골북합센터 뜨개질 수업 수강생들 및 일반주민들 3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10월까지 약 2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감만1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뜨개질 수업을 들었다. 뜨개질을 처음 접하는 사람, 재작년에 참여한 사람, 옆 사람 소개로 온 사람 등 다양한 봉사자들이 모여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수업은 한번 할 때마다 2시간동안 진행됐다. 코 만들기부터 배웠던 뜨개질 초보 봉사자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집에 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 연습하더니 이내 곧 손놀림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뜨개질에 익숙한, 손이 빠른 봉사자들은 일주일 사이에 여러 개의 목도리를 똑딱 완성하기도 했다. 내가 할 목도리도 아니고 나의 지인에게 선물할 목도리도 아니었지만 봉

사자들은 손끝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목도리를 만들었다. 한 코 한 코를 이어서 만드는 손뜨개 목도리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이 걸린다. 소중한 시간을 이웃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는 봉사자들을 보며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10월 마지막 주가 왔고, 손뜨개 교실에서 목표로 한 250개의 목도리도 완성이 되었다. 완성된 목도리는 예쁘게 포장되어 각자 주인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 7일, 감만1동 행정복지센

터에서 개최된 ‘사랑 나눔 손뜨개 목도리 전달식’에서 목도리는 동네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재작년에 받은 손뜨개 목도리를 하고 왔는데 그새 많이 헤진 목도리를 풀고 새 목도리를 돌려드리니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셨다. 새 목도리가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어드릴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다.

전달식에서 전달되고 남은 목도리는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대상 어르신들과 지역아동센터 2개소 아동들 및 저소득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이라고 한다. 손뜨개 교실 봉사자들의 마음이 전달돼 이웃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백인영(SNS 서포터즈 누비단 1기)



서가연어, 2년간 도시락 후원



대연1동 소재 음식점 서가연어(대표 서양삼)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년째 매일 홀로어르신 6가구에 도시락을 후원하

고 있다.

이는 대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홀로어르신 세대를 선정,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서가연어는 후원자로 동참하고 있으며 올해는 후원 2주년을 맞아 백미10kg 6포와 김 6세트를 전달했다.

정직유부, 오픈기념 도시락 기부

(주)채정 정직유부(대표 조현홍)는 7호점 부산 남구청점 오픈을 기념해 지난 14



일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에 34만원 상당의 유부도시락 100인분을 기부했다.

조현홍 대표는 “가맹점 오픈시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는 뜻으로 도시락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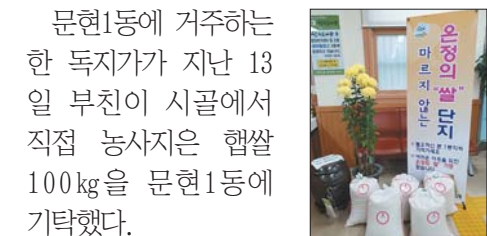
■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 ■

전국자원봉사연맹 연탄배달



전국자원봉사연맹(이사장 안미란)은 지난 16일 문현1동 에너지 빈곤세대에 ‘2019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총 3,000장의 연탄을 홀로어르신 세대 및 저소득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문현1동 독지가 협쌀 기탁



문현1동에 거주하는 한 독지가가 지난 13일 부친이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는 협쌀 100kg을 문현1동에 기탁했다. 독지가는 평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쌀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해놓은 ‘마르지 않는 온정의 쌀 단자’를 눈여겨보다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 이름, 나이, 성별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독지가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전달되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대천초 학부모회
수제 천연화장품 기부

대천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 김재이)는 지난 10월 29일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만든 수제 천연비누와 자운고, 람판 등 45세트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기부받은 천연화장품 세트는 관내 홀로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로당에 밥솥이 생겼어요’
주민이 주민에게 밥솥 기증

용호4동 협진대양아파트 경로당에 주민 박상순 씨가 30만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기증해 동네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경로당에서 오랫동안 써오던 밥솥이 고장나 밥 먹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어르신들을 위해 아파트 주민 박상순 씨가 밥솥을 구입, 경로당에 기증해 어르신들이 몇 달 만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이웃을 위해 선뜻 밥솥을 기증해준 따뜻한 마음에 밥이 더욱 맛있는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